

1 불황 극복을 위한 축산 및 사료 관련 업계의 나아갈 길



임호중 팀장
(주)삼양사 사료
BU 연구개발팀, 농학박사)

국제 곡물가 수직 상승과 해상 운임의 폭등, 각종 가축의 질병 발생 및 만연, 축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합사료 생산에 있어서 주원료인 옥수수가 미국산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9월 톤당 약 135불에서 2004년 2월 현재 약 190불선까지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해상운임 역시 중국의 영향으로 걸프지역에서 인천항까지 파마낙스(약 54,000톤)를 기준으로 2003년도 평균 톤당 35불에서 현재 약 72불까지 폭등하였고, 향후의 국제 곡물가의 상승한계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축산업계는 축산 농가로부터 유통 업계까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

특히, 조류독감 및 미국 광우병 등의 여파로 양계 및 축우 축산물 소비 격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류독감 여파로 육계와 오리의 소비감소가 60~70%에 이르자 육계와 오리산업은 존폐의 위기까지 처했으나 현재는 소비촉진 운동과 언론 매체의 호의적인 보도 자세로 소비의 20~30%가 회복되어 다소 안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불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부의 축산 정책의 효율성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축산 농가 이익 확보 등)방안 제시, 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 제도 및 부가가치 세제의 개선 등등이다.

둘째는 축산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사료 산업 관계자의 상호 협력 체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먼저 정부의 단·중·장기적인 축산 정책 수립, 축산 장려 및 보호 운동,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제시, 각종 질병 방역 및 소득 System 확립을 건의하고 싶다.

그리고, 각종 부화장, 종계장, 종돈장, 종모우 회사 및 관련 단체의 철저한 Vaccine Program 준수 및 투철한 관리 등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思料된다.

축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축종별 생산 및 수급 조절, 각종 질병의 예방, 축산물 소비 권장 및 홍보, 각국의 축산물 생산성 대비 국내 축산물의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上記 문제 및 해결 방안은 정부, 축산 관련 단체, 각 사료회사, 각 농장을 경영하는 축산 농가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때 우리나라 축산의 Vision과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강력히 제안하고 싶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사료산업의 역할을 나름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수입 축산물 대비 국내 축산물 품질 차별화

- 1) 신선한 축산물 생산
- 2)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 3) 안전한 축산물 생산
- 4) 정부 차원의 국내 축산물의 품질 우수성 및 소비 촉진 홍보 요청

2. 신기술 및 신개념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 1) 축산물 안전성 Concept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
(무항생제 사료 및 항병력 강화 사료 개발 등)
- 2) 국민 건강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신제품 개발
(Brand 축산물 및 기능성 사료 개발 등)
- 3) 신물질 및 신이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3. 축산물의 생산 비용 절감

- 1) 질병 및 수의단체와 연계한 질병 감소 대책 수립
- 2) 우수한 각 축종별 종계장, 종돈장, 종모우장 소개 및 Vaccine Program 준수 권장
- 3) 각종 Total Services(경영관리, 경영분석, 축산 미래 관측 및 대응 전략 수립, 질병 및

사양기술, 사양 관리 등) 향상



4. 사료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

1) 사료 가공 비용 절감

- (1) 공정 개선
- (2) 작업 방법 합리화

2) 수입 원료 가격 양등에 따른 대체 원료 개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배합사료용 원료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고 있으며, 더욱이 현재 국내외 상황은 사료 자원의 품귀와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원료 수입국들은 사료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국내 부존 사료 자원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여 사료비를 절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 (1) 국산 원료 개발 및 사용 다양화
- (2) 신규, 경제성 개발 및 사용 활성화 등이 있다.

3)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소비 홍보

- (1) 축산 관련 단체
- (2) 각종 사료 회사

4) 철저하고도 유연한 축산 및 사료 관련 학습 조직 구축

- (1) 사료회사: 다양한 Channel을 통한 사료 기술 정보 제공, 각종 사료 기술 세미나 및 신기술 정보 교육 등
- (2) 학계: 축산 및 사료 관련 업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교육 및 Seminar 실시
- (3) 축산농가: 각종 축산 관련 잡지 및 서적 탐구, 연구를 통한 축산 지식 축적



(4) 산학 협동 연구회 활용 및 교류 확대, 활성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 및 사료 관련업계 불황 극복의 해답은 정부, 축산 관련 단체, 산학 협동, 축산 농가 等等 모든 관련 분야가 서로 긴밀한 협력 및 System 化를 통해서 제시되어진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양계산업은 현재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산잠재력 감소와 태국, 미국의 닭고기 수입 중단으로 소비가 회복되면 불황을 벗어나게 될 것이며, 양돈산업은 조류독감과 광우병의 대체수요 발생과 상반기 출하두수 감소로 호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육우 역시 광우병으로 인한 수입중단과 맞물려 기존의 국내산 한육우의 공급부족이 가중되어 호황이 지속될 것이며, 낙농산업도 분유재고가 적정수준으로 하락되어 납유 쿼터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의 불황과 호황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인내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절실한 시기이다. 정부의 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적절히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㉟

